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7월 10일(월) 총 5매	
담당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기범 ☎440-4421 • 담당자 이승환 ☎440-4424 • 담당자 박예슬 ☎440-442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가는 인천,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

- 현재 인천으로의 성장과정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알기 쉽게 정리 -
- 5가지 주제별 도시정책수립 과정 및 비하인드 이야기 등 수록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도시계획의 발자취를 서술한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은 1962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인천 도시계획의 정책과 변화를 5가지 주제(도시공간정책, 기성시가지, 신시가지, 산업공간 조성, 교통물류)로 구분해 시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 책은 각각의 주제를 한 권의 책으로 구성했다. ▲제1권은 인천의 도시기본계획 변천과 인천의 공간변화를 ▲제2권은 인천 기성시가지 성장과 쇠퇴 그리고 도시재생 이야기를 ▲제3권은 인천 시가지 형성과 확산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제4권은 인천 경제성장의 중심인

산업단지와 공장의 변화를 ▲제5권은 공항·항만, 고속도로와 철도, 해상교량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과정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아울러 문학 작가와 협업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서 형식으로 발간했으며, 권별로 수록된 책자 내용을 별도 동영상으로 제작해 어른들뿐 아니라 인천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도 인천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사적(史的) 자료의 정리와 함께 미래 인천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 책을 읽은 시민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형성됐고,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인천에 있는 공공도서관 및 주요 도시계획 관련 업무 기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인천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간행물)을 통해 인천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제별 내용을 요약·제작한 동영상은 인천광역시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icncityhall/>)에서 볼 수 있다.

<붙임> 1.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표지 및 주요내용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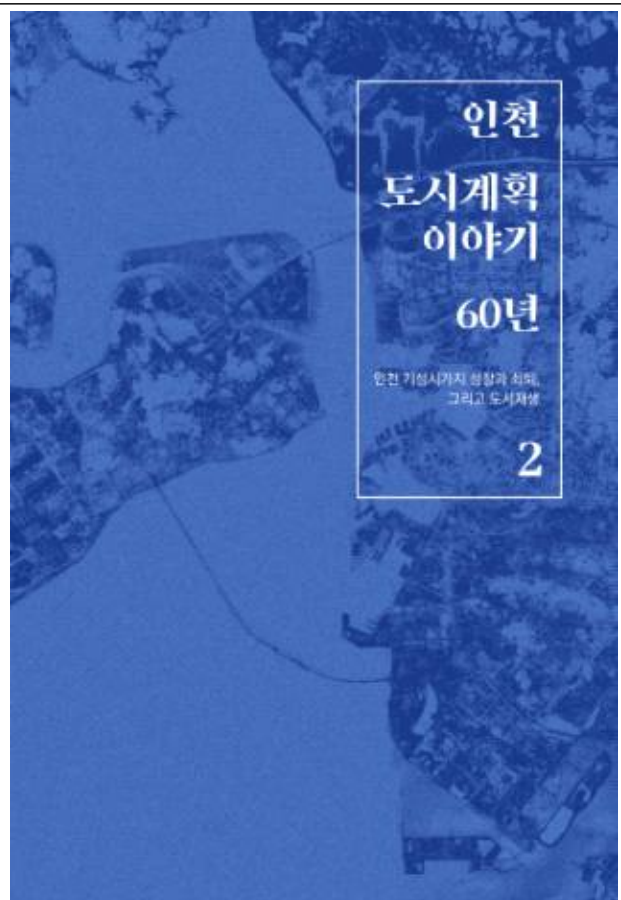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표지 및 주요내용



<전체>



<1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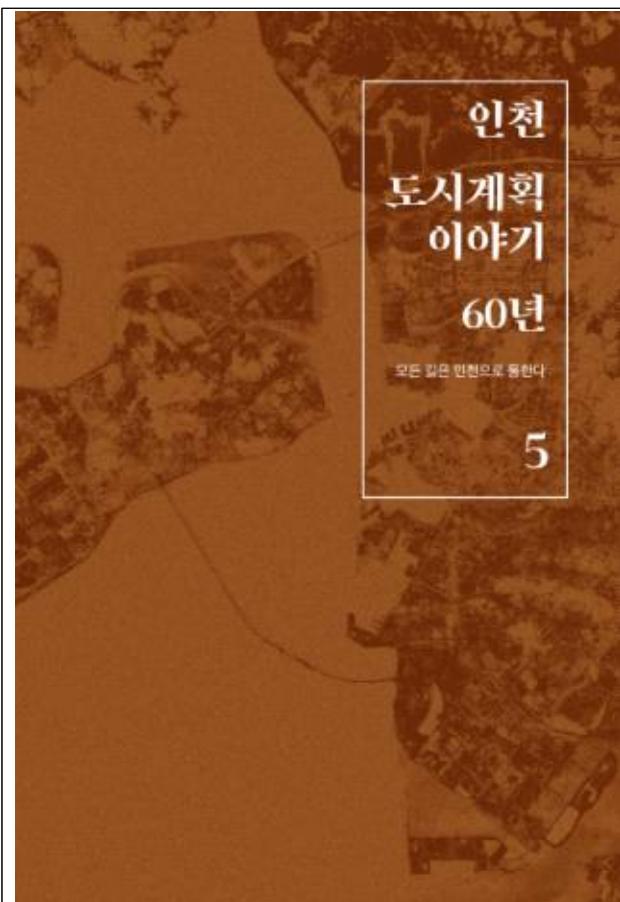
<2권 표지>



<3권 표지>



<4권 표지>



<5권 표지>

인천시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과정

1963년 경인 특별직할 시절에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에 따르면 경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⁸⁾이 실시되면서 인접지역에는 각종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구 유입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당시 중공업부가 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천이 경인 공업 지역의 한 축을 맡게 되었고, 산업도시로의 발돋움에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항만과 공단의 지속적인 확대, 경인선 전철화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도시는 빠르게 성장한다. 인구는 100만을 넘게 되고 드디어 1981년 대구와 함께 직할시로 승격하게 된다.

한편, 1989년 김포군 소속의 제왕면과 용진군의 병동면, 용유면을 편입하여 행정구역 면적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행정구역 전면 개편에 따라 1995년에는 강화군과 용인군 전북대부분 제외, 김포군 관할의 경단면을 편입하여 오늘날의 인천광역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구는 남구(현재의 여주출구)와 연수구로 분리되고,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로 나뉘어 8개 구와 2개 군, 합해서 1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존속하는 수도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⁹⁾

인천지역이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을 갖추고 최초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된 시점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이다. 이때는 아직 부평과 통합(1940년)되기 전이므로, 지금의 중구와 동구 그리고 여주출구 일대가 들어간 27,588㎢의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이 계획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40년에 부평지구 계획을 건설하고 1944년에 중·동구 일대의 인천과 부평지역을 통합하는 편제로 168,887㎢까지 계획 구역이 확장되었다.

8) 인천광역시, 1989

9) 인천 도시계획위원회, 2019

8 인천시 도시계획구역의 변천도



1970년대에는 해방지와 해방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하였다. 도시 기본계획이 제정된 1980년대에도 해방지와 공유수면 구역을 계속하여 추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행정구역 변동에 따라 계양 일대와 영종·용유·부여도,

1971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주요 내용(1권 발췌)>